

# 팍팍한 농가, 약초류로 경제난 돌파

### 익산시 감초유통사업단 산림소득공모사업 선정 총 3억2800여만원 확보 고부가가치 창출 가속도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산림청이 주관하는 2018년 산림소득공모사업에 농업회사법인 감초유통사업단(대표 김태준)이 최종 선정되어 국도비

3억2,800여만원(국비2억8,560만원, 도비4,240만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임산물(약초류)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규모·현대화로 임산물 생산성과 품질향상 등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총 사업비 7억1,400만원이 투입돼 금마 동고도리 및 함라 금성리 소재 2곳(6,930㎡)의 생산단지에서 재배용기 및 시설파이프, 관수설비 설치 등을 해 현대·규모화 한다. 이에 따르면 이번 임산물생산을 위

한 재배단지 추가 조성으로 향후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에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감초유통사업단이 뿌리작물 재배용기와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생산량 증대로 인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향후 계획대로 재배했을 경우 감초 수입량의 30퍼센트 정도를 국산화 할 수 있고 감초 등 3개 품목에 대해 연간 500억원 정도의 수입대체 효과를 얻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앞으로 국가식품클

러스터에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기능성 임산물 재배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우수한 임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선도 임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2013년에 설립한 감초유통사업단은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여 활발한 감초가공 및 유통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해 6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익산에서 전도유망한 기업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사)군산발전포럼은 최근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회의실에서 '군산앞바다 상괘이 보호'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웃는 돌고래 '상괘이' 지켜주세요

### 멸종위기종, 서해안에서만 年 1400마리 죽어 군산발전포럼 세미나서 보호방안 모색·공유

서해안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토종 돌고래 상괘이를 보호하지는 운동이 서서히 군산 사회에 일고 있다.

(사)군산발전포럼(상임의장 최연성 군산대학교수)은 최근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회의실에서 회원과 시민, 고군산군도 어민대표 등 30명이 모여 '군산앞바다 상괘이 보호와 우리의 할 일'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순호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래연구센터 연구관은 "비소전사로 알려진 상괘이는 멸종위기에 있는 소중한 우리의 토종 고래인데 혼획으로 한 해에도 집계된 통계로만으로도 한해 1,400마리가 서해안에서만 죽어가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특히 서해안에서 인간망에 의한 혼획이 80%이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실정을 밝혔다.

손 연구관은 또 "고래연구센터에서의 연구에 의하면 상괘이 탈출망을 사용할 경우 상괘이 혼획이 현저히 줄었던 연구결과가 있다"고 밝히고 "서해안인 군산 앞바다에서의 어민들이 상괘이 탈출망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최정봉 전 신시도 이장은 현장감 있는 질문과 함께 "우리가 사랑하는 바다자이언 상괘이 보호를 위해 선유도등 고군산군도 어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해 상괘이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 최연성군산발전포럼 의장(군산대학교수)은 "우리 포럼 차원에서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보호캠페인 펼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협조와 어민들의 교육 그리고 바다자이언의 소중함을 우리사회가 다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 내년도 축제 13개 열린다

### 축제위원회 개최... 행사 심의 23억 규모 원안가결 만장일치

군산시가 시청에서 2017년도 제1차 군산시축제위원회를 개최하고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의 축제 개최에 따른 결과 보고와 함께 2018년도 축제 사업 계획을 심의했다.

심의대상은 군산시로부터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고 개최 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군산시간여행축제, 군산공당보리축제, 군산-서천 금강철새여행 등이다.

이날 축제위원회에서는 8개부서 담당 과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행사가

종료된 축제 및 행사에 대한 결과보고와 내년도 개최예정인 13개 축제 및 행사 등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을 들은 후 심의위원회의 질의·응답을 거쳐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으며, 심의결과 내년도 개최 예정인 23억원 규모의 13개 축제 및 행사에 대해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다.

특히 지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개최된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군산시간여행축제의 내년 사업 규모 10억1,000만원에 대해 가결하고, 향후 문화관광부 대표축제를 진입을 통해 군산관광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담당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군산-서천 금강철새여행에 대해서는 방문 철새 수의 급격한 감소와 행사 시기마다 발생하는 A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축제의 폐지 또는 시기조정 등에 대한 심각한 내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밖에 소모성, 1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축제 효과가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각 부서에서 찾도록 주문했다.

윤오섭 축제위원회 부위원장은 각 부서 과장들에게 "성공적으로 축제를 이끌어주길 바란다"며 지역발전을 위한 축제 내실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중국어선 품수 조업 '만행' 군산해경, 감시활동 강화

해경이 허가 중국어선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군산해양경찰서는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의 검문·검색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최근 일주일 간 약 20여척의 중국어선을 검문검색했으며, 이 가운데 21일 오후 3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18km 해상에서 조업중인 84t급 중국어선(유망, 승선 8명, 남배아선적)을 포함해 총 9척에 대해서 경고, 계도장을 발부했다. 이 배들은 단순 착오(조업시간 오기, 조업일지 수장방법 오류 등)로 인한 '조업일지 오기(誤記) 사유'로 경고·계도장을 받았다.



군산해양경찰서는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의 검문·검색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산해경이 관할하는 전북도 먼 바다에는 일일 평균 10여척의 허가된 유망·위망 중국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으며 평균 척당 1t의 오징어와 삼치 등을 잡아 운반선을 이용해 중국 현지로 옮기고 있다.

이들 중국어선은 조업이 허가된 어선들로 해경은 가을철 풍어기를 맞아 조업량을 속이거나 허위로 조업

일지를 적는 행위, 기준에 위반한 그물사용 등의 '품수' 적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이재희 외사계장은 "대한민국 해양경찰의 강한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라도 불법의 '품수'를 찾는 세심하고 정밀한 검문검색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황금연휴 수돗물 공급 차질없다"

### 군산 수도사업소 명절 기간 비상근무 상황실 운영 돌입

군산시 수도사업소는 오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의 추석연휴 기간 동안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상수도 생활민원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올 추석은 연휴기간이 길어 귀성객의 증가에 예상됨에 따라 시에서는 평소보다 늘어난 수돗물 수요를 사전에 대비하고 연휴기간이 끝날 때까지 배수지, 가압장 등 각종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하고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민전을 기하고 있으며, 연휴기간에

상수도 누수와 단수, 수도관 파손 등 생활민원을 접수받고 상수도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시민불편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과 정비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비상근무 상황실 운영으로 문제 발생에도 즉시 처리하여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과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는 편안한 명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수도에 관한 불편사항 접수나 기타 자재한 사항은 국번 없이 120번이나 시청 수도과(☎ 454-542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 금융기관
- 가상계좌
- 인터넷
- 전화 (ARS 1577-8179)
- 편의점
- 신용카드 포인트
-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http://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